

## 긴 터널을 지나 밝은 세계로

### 최 기 자(막달레나)

(강남성모병원 간호사)

이씨는 73세로 1987년 간경변증이라고 진단받았고, 1990년 2월엔 간암 파열이라는 진단 아래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는 분으로, 식욕 부진과 복수, 호흡 곤란을 겪고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여 8층 동병동에 있다가 호스피스 병동으로 왔다.

성격은 이지적이며, 누구에게도 쉽게 굽히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왔으며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

우리가 처음 이씨를 만났을 때, 그분은 복수, 구토증, 호흡 곤란, 객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신의 병이 간경변증이 아닌 간암일 것이라고 생각하며 면담중에 계속 확인해 보려고 하였다. 그리고 스스로 암이라고 판단하고 우울해 하며 죽음에 대한 공포를 떨쳐 버리지 못해 불안해 하였다. 그러나 우리 호스피스팀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씨에게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첫번째 방문(1990년 6월 1일)

주치의로부터 환자를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의뢰를 받고, 근무 후 책임 간호사와 8층 동병동에 있는 환자를 방문하였다.

환자는 2인용 병실에서 안과 환자와 한 병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며느리와 간병인이 환자 곁에 있었다. 키는 커 보였고, 반듯한 인상에 의식도 명료했으나 복수가 심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희는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들인데 할아버지의 주치의께서 방문해 보라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힘드시죠?”

“네, 근데 호스피스라는 게 뭐예요? 처음 들어 보

는데……. 이 병원 안에 있어요?”

“네, 처음 들어 보시죠? 호스피스 병동은 응급실 3층에 있고요, 환자는 모두 10명인데, 작고 아담한 곳이에요. 그곳엔 할아버지처럼 힘든 환자분들의 통증을 덜어 주고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돕는 곳이에요.”

간호사들은 호스피스 병동에 대해 다정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아가, 그럼 아예 지금 다녀와 봐라.”

우리 간호사들은 이씨에게 인사를 하고 며느리, 간병인과 함께 호스피스 병동으로 안내해 자세히 소개를 하니, 그분들은 흡족해 하며 병실로 돌아갔고 얼마 안 있어 이씨를 휠체어에 모시고 왔다. 이씨도 직접 구경하고는 만족해 했다. 그리고 그날 6시 30분경 옮겨 왔다.

두번째 방문(6월 4일 10시 30분)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 온 지 4일째 되는 날, 구토증을 걱정하며 면담을 신청해 왔다.

“내가 암이지?”

나는 부드럽게 손을 잡고 환자의 눈을 응시하며 말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셨어요?”

“자주 토하니까. 내 친구도 암으로 죽었는데 토하고 복수도 이렇게 잦아.”

그는 동의를 구하듯이 쳐다보며, 내 표정을 놓치지 않고 살피고 있다. 나는 직접적인 대답은 하지 않고 환자의 손을 어루만져 주며, 현재의 상태를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다.

“네, 그래서 암이라고 생각하셨군요. 아직은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또 할아버지의 치료를 위해 선성남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만일, 암이라는 진단이 내려지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암이라도 할 수 없지…….”

그날 오후, 우리는 며느리와 이야기하던 중에 “차마 우리 입으로는 말 못 하겠어요.”라며 며느리가 암인 것을 알리기를 두려워 기피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환자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살아온 생을 정리하고 앞으로 남은 삶을 좀더 의미 있게 지내면서 죽음을 편안히 받아 들일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환자가 물어 올 때 부정하지 말고 신중히 대처하자고 상의하였다.

세 번째 방문(6월 10일)

이씨의 복수를 빼 주었다. 전혀 먹지도 못하고 설사도 하루에 대여섯 차례 하는 가운데 실금도 자주 하였다. 밤 근무를 맡은 간호사가 병실을 순회할 때 이씨는 화를 내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였다.

“오늘 오후에 주사를 놓는데 일곱 번이나 찌르잖아. 그 간호사 나빠.”

“네. 주사를 그렇게 어렵게 맞으셨군요. 힘드셨죠? 고생하셨네요.”

환자의 손을 잡으며 위로해 드렸다.

“나 이젠 어려운 것 같아 그렇지?”

나는 말없이 손을 잡고 바라보았다.

환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가망이 없어.”하고는 기운없이 한동안 있더니 “나 암이지? 알만도 한데 모두들 쉬쉬 하는 것을 보면……. 그리고 먹지도 못하는데 토하고 설사하고 복수 차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해.” 앞의 환자를 가리키며 “저 사람도 암이지?” 한다.

환자는 확인이나 한듯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있다.

“할아버지,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암이라도 말씀드리기가 괴로울 거예요. 가족들로서 큰 용기가 필요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관념으론 환자에게 사실을 알린다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가족들로부터 사실 이야기를 듣길 원하세요?”

“난 살만큼 살았어.”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함숨을 쉬며 말했다.

“그런데 고통이 너무 길어. 벌써 석 달째여. 죽음이 무섭진 않은데 너무 지루해…….”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이며 이젠 자야겠다고 하여 도와드리고 나왔다.

네 번째 방문(6월 16일)

이씨는 그 동안 가족들에게 집요하게 캐물어 가족회의 후 환자에게 암인 것을 알렸다. 가족들과 환자 모두 울었고, 환자가 퇴원하기를 위해 집에서 적응하며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집에 다녀오기로 결정하였

다.

“나, 집에 가고 싶어. 집에 가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죽고 싶어. 내 집에서……”

“할아버지, 마음 약하게 잡수시면 안돼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예요. 맥에서 지내시다가 힘드시면 언제든지 오세요. 저희가 대기하고 있어요.”

6월 16일 오후에 외출하여 맥에 계시다가, 6월 17일 오후에 휠체어로 귀원하면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 오기 싫어지만 병이 걱정이 되어 왔어.”하며 표정이 밝았다.

다섯 번째 방문(6월 20일)

병실 순회중 들르니, 이씨는 병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며 호소하였다.

이씨는 몸부림치며 부르짖는다.

“배를 찢고 수술해 줘! 낮게 해줘! 배를 가르고 싶어. 그리고 집어 내던지고 싶어. 진짜야! 그러면 살 것 같아!”

“그래요, 너무 고통스러우시죠!”

손잡고 등을 어루만져 드리며 곁에 있었다.

여섯 번째 방문(6월 30일)

그 동안 위출혈이 있어 레빈관(코를 통해 위,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가는 관)을 4일 정도 유지하고 있었으나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하며 빼는 바람에 구토증을 보였다. 혈변도 하루에 10회 정도 하고 설사도 하였다.

별말 없이 조용히 누워 있다가도, 자극이 오면 보는 사람마다에게 분노의 감정을 표현했다.

간호사가 링거 주사 놓으려 하자 “놓지 마!”하곤 산소줄이며 소변줄까지 잡아 빼려 한다.

간호사는 얼른 손잡아 주며

“고통이 길어질까 봐 그러시죠? 그렇지만 계시는 동안에는 가능한 한 고통도 줄이면서 편안히 계시어지요.”

하며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이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주사는 놓지 말고 소변줄은 그냥 뒀어.”

“그렇게요.”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기분 전환을 위해 면도도 해주니 순순히 응하였다. 가족들에겐 불필요한 자극은 될 수 있으면 피해 드리라고 격려했다.

일곱 번째 방문(7월 6일)

“나 빨리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운없이 말하며, 조용한 곳을 위해 1인실로 옮겼다.

자주“나 언제 가?”하고 묻기도 했지만, 말 수가 적어졌고 죽음을 스스로 수용한 듯 보이면서도 우울해 하였다. 수사님과 수녀님, 자원 봉사자들이 방문하여 기도를 드렸지만 무표정하게 있었다.

“할아버지, 종교가 불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니지는 않았어. 집사람이 열심이라 나도 그냥 불교라고 그러는 거여.”

“그러시군요……. 참, 할아버지! 굼벵이가 매미가 되고 애벌레가 나비로 변하듯이 우리 인생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세요? 죽음이란 것은 그 새로운 세계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래요. 기차를 타면 지나가게 되는 터널과 같은 거예요. 캄캄하고 답답했던 터널을 지나게 되면 밝고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잖아요? 할아버지,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드시지만 할아버지 혼자만 아니세요. 사랑하는 부인과 가족들, 그리고 저희가 할아버지 곁에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씨는 고개를 끄덕인다.

여덟 번째 방문(7월 21일)

그 동안 불안해 하며 딸에게 목사님 좀 불러 달라고도 하였으나 교회 나가는 큰딸의 권유로 가족 회의 후 가톨릭 교리 공부를 시작하였다(7월 16일).

그러다 상태가 나빠지고 말씀도 거의 않고 자는 시간이 길어져 교리 공부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부는 하지 않고 듣고 있었고 수사님, 수녀님, 간호사,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자주 방문하여 성가와 기도를 해드리는 가운데 차츰 마음의 문이 열렸다.

7월 19일 본인이 원하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수녀님의 주도로 요셉이란 이름으로 대세를 받았다. 가족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다.

의식이 흐려지면서 이제 죽음이 그늘이 찾아들었

음을 모두 알 수 있었다. 호스피스팀 모두가 정성 들여 돌보고 간호하는 가운데 7월 21일 0시가 지나면서 호흡이 나빠져 가족들은 모두 대기했고, 이씨는 평소 즐겨 입던 한복으로 곱게 갈아입고 가족들의 기도 가운데 평안한 모습으로 운명했다. 가족들은 침착하고도 조용한 가운데 이씨의 임종을 받아들였다.

임종 후 가족들이 천주교 전례대로 장례를 치르고 싶어해서 원목실을 통해 도움을 드렸다. 7월 23일 장례 미사를 잘 마쳤다.

며칠이 지나 가족들은 호스피스 병동을 방문하여 그 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하며 고마워하였다.

한 생명이 태어나서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우리 호스피스팀이 담당하고 있다. 그 팀의 일원이 되어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공포에 떨며, 육체의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이들 옆에서 작으나마 위로가 되어 주고, 믿음과 소망을 심어주어 한 생명이 죽음이라는 완성점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돕는 호스피스 보살핌에 자부심을 느끼며 감사를 드리게 된다. 한 번이라도 더 환자를 돌아보고 사랑의 눈길과 손길을 나누는 그 활동 안에, 주님의 뜻이 나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이씨의 경우, 가족은 환자가 암인 것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쉬쉬하고 있던 차에, 환자 스스로가 느껴“내가 암이지? 그렇지?”하고 물어 와,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인지하도록 했으며,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도록 도왔다. 보호자와도 면담하여 필요한 시기에 환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을 솔직히 털어 놓게 한 다음,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다음 맞게 될 새로운 영적 세계를 소망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같이 호스피스 보살핌을 통해 이씨가 편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삶을 정리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고 생각한다.